

-(으)ㄴ/는 대로

~한/는 대로 — 그대로, ~하자마자 (절 뒤)

다음의 절 뒤에 쓰는 용법입니다: 대로 어떤 관형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의미로 갈리므로, 여기서는 시제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끝난 본보기	-(으)ㄴ 대로	말하다 → 말한 대로
진행 중인 본보기	-는 대로	보다 → 보는 대로
~하자마자	-는 대로 + 미래	도착하는 대로 연락할게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대로
띄어쓰기	별개의 단어	말한 대로 — 말한대ろ가 아님
명사 뒤	붙여 씀	약속대로

■ 언제 쓰나요

다음과 함께 쓰면 -(으)ㄴ 대로 동작은 이미 끝났고 그것이 본보기가 됩니다: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(내가 말한 그대로 해라). 다음과 함께 -는 대로 방식의 의미로 쓰면, 본보기가 진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것입니다: 보는 대로 말해 주세요.

그런데 -는 대로에는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.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붙으면 '~하자마자 곧'이라는 뜻이 됩니다: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두 해석은 문맥으로 깔끔하게 구분됩니다. 앞으로 할 동작이면 시간의 의미, 현재나 습관적인 동작이면 방식의 의미입니다.

이 시간의 용법은 약속이나 일정에 씁니다. 다음과 비교해 보세요: -자마자 이것은 과거의 일에도 자유롭게 쓰이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는 만드는 대로가 됩니다. 또 관형형 뒤의 대로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제가 말한 대로 해 주세요.
- 2 배운 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.
- 3 본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.
- 4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.
- 5 저녁이 만들어지는 대로 부를게요.
- 6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

■ 비교

명사 + 대로

명사 바로 뒤에서는 대로를 붙여 쓰며 관형형이 필요 없습니다: 약속대로, 계획대로. 이 항목에서 다루는 것은 절 뒤에 쓰는 형태입니다.

약속대로 왔어요. / 약속한 대로 왔어요.

-자마자

시간의 의미에서는 둘 다 '~하자마자'라는 뜻이지만, -는 대로는 앞으로의 일을 가리켜 약속에 어울립니다. -자마자는 과거의 일도 자연스럽게 전하며 즉각성을 강조합니다.

끝나는 대로 연락할게요. (끝나면 바로 연락하겠다) / 끝나자마자 연락했어요. (끝나자 즉시 연락했다)

처럼

처럼은 닮음을 나타내고, 대로는 지시나 본보기를 따름을 나타냅니다. 흉내와 따름의 차이입니다.

가수처럼 노래해요. (가수같이) / 배운 대로 노래해요. (배운 그대로)

■ 주의

✗ 어제 제가 말하는 대로 했어요.

○ 어제 제가 말한 대로 했어요.

지시는 이미 주어졌으므로 관형형은 과거입니다. -는 대로는 진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본보기를 나타냅니다.

✗ 회의가 끝난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.

○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.

'~하자마자'의 의미에는 동작이 미래의 일이라든가 -는을 써야 합니다. -(으)ㄴ 대로를 쓰면 '끝난 그 방식대로'라는 뜻이 됩니다.

✗ 저녁을 만드는 대로 부를게요.

○ 저녁을 만드는 대로 부를게요.

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